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위한 대 정부 정책 제안·외

도서관콘텐츠확충과 책읽는사회만들기 국민운동
(공동대표 도정일 외 8명)은 지난 8월 6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도서관 증설과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위한 정부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이날 도정일 공동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열악한 수준이다. 이런 문화빈곤국의 현실은 국가 수립 이후 50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고, 역대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책도 수립한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가 이 현실에 충분히 주목해 장단기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필요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안한 정책은 ▲공공도서관 증설 10개년 계획을 국책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콘텐츠 예산의 정책적 확보 — 연간 1천억원 이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 ▲기초 고전 번역 및 이-텍스트(e-text) 개발과 문화 디비 구축 10개년 계획 수립 ▲도서관 구입 도서의 차등정가제 실시 등이다. | 546-8797 | www.bookreader.or.kr



간행물윤리위원회, <8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는 <8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책은 『달콤한 인생』(최인호, 문학동네),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짓말』(제임스 W. 로웬, 이현주, 평민사), 『우리 시대의 윤리』(김태길 외, 뜨인돌), 『대봉괴 신질서』(프랜시스 후쿠야마,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한국경제신문사), 『위대한 영웅 책 웰치』(자넷 로위, 강석진, 물푸레), 『문화를 알면 경영전략이 선다』(김중순, 일조각), 『갈릴레이의 생애』(베르톨트 브래히트 외, 차경아, 두레), 『여성의 삶과 미술』(염혜정, 창해), 『한국의 문과 창호』(주남철 글·이경재 사진, 대원사), 『하늘을 옮린 사랑』(정하섭 글·이성숙 그림, 창작과비평사)다.

| 669-0772 | www.kpec.or.kr

| 한국서련·출판협회 공동 집계 |

2001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종합순위(1월~6월)

순위	제목	저자	출판사	분야
1	상도	최인호	여백미디어	소설
2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진명출판사	비소설
3	국화꽃향기	김하인	생각의나무	소설
4	가시고기	조창인	밝은세상	소설
5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외	황금가지	비소설
6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피에르 쌍소	동문선	비소설
7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조앤 K. 롤링	문학수첩	소설
8	열한번째 사과나무	이용범	생각의나무	소설
9	이주 오래된 농담	박완서	실천문학사	소설
10	힐링 소사이어티	이승현	한문화	비소설

대한출판문화협회, 《2001 한국출판연감》 발행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가 지난 7월 16일 『2001 한국출판연감(전2권)』을 발행했다. 이 연감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 1년간 한국 출판 문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망라해 정리·편찬한 것이다. 제1권 『자료편』에는 출판계와 그 관련 분야에 대한 개관을 비롯해 통계·법규·참고·명부 등의 자료를 모두 5편으로 나눠 실었고, 제2권 『목록편』에는 도서(만화 포함)·학습참고서 목록과 서명 색인을 수록했다. 이 연감에 따르면 2000년도 신간발행 부수는 총 6,840만권으로 지난해 발행된 7,584만권보다 744만권(9.8%) 줄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철학이 44.3%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학습참고서(30.5%), 사회과학(6.8%), 예술(6%), 종교(4%) 등의 순이다. 분야별 도서 발행종수는 34,961권, 평균정가는 10,268원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 현재 문화광판부에 등록된 출판사는 16,059개, 서점은 3,459개로 지난해 보다 각각 274개와 1,136개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 735-2701 | www.kpa21.or.kr

한국출판인회의, 제2차 이사회 결의사항 발표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언호)는 지난 7월 31일 출판인회의 회의실에서 '2001년도 제2차 이사회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사재기와 관련해 출판계의 각성과 자정을 촉구한 지난 6월 21일자 성명에 대한 제재조치로 이뤄졌는데, 생각의나무가 『열한번째 사과나무』와 『아침인사』를 사재기한 혐의가 명백히 확인됨에 따라 2001년 7월 31일자로 회원에서 제명한다고 밝혔다. 출판인회의는 앞으로도 혐의가 있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 3444-0623

교보문고, '출판 예정도서 코너' 신설

교보문고(대표 김년태)는 지난 7월 20일부터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출판 예정도서 코너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이 코너는 소설·비소설·인문·경제 등 11개 분야로 나눠 출간 예정 도서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사항과 간단한 서평, 표지, 삽화, 저자 약력 등을 제공하며, 코너가 정착되면 예약주문도 받을 예정이다. | 397-3427 | www.kyobobook.co.kr